

다시 신발끈 매는 금호타이어 임직원들

중국 더블스타 새 주인 '청산' 최악 사태 피해 본업 충실 여건 마련돼 공격적 영업활동 통해 "회사 정상궤도 각오"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대체로 경쾌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 만큼, 다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본사에 대한 독립 경영 보장을 약속했으니 이제 임직원들이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보다 공격적 영업 활동을 통해 회사를 신속히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직원 A씨는 2일 뉴스시외의 통화에서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난 부분이 매우 기쁘다"라며 "노사 모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경영 정상화를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원 B씨도 "지난주까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다"며 "해외 매각이 결정된 만큼 국내외 시장에서 다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직 직원 C씨는 "처음에는 해외 매각을 반대했지만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 찬성표를 던졌다"라며 "더블스타가 직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공장에 출근한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맑은 바 업무에 나섰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국내 기업으로의 인수'를 주장했던 노조 집행부는 해외매각 찬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해외매각이 아니면 금호타이어를 청산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 더블스타 자본 유치 찬반 투표가 가결된 다음 날인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직원들이 생산 라인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노조 집행부에 속한 D씨는 "찬성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외 매각을 반대했던 이들은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했던 약속을 안 지키면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서서히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여금 250% 삭감 등 이번 자구안만 놓고 보면, 노동자들 손해가 크다"며 "차라리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서 부실한 중국공장 정리하고 체질 개선을 하는 게 낫을 것"이라며 의견을 내놨다.

금호타이어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대리점 업주들도 해외 자본 유치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 다들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도 회사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리점 업주는 "금호타이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며 "거래선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협력사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 위협으로 협력업체도 연쇄부도 위기까지 몰렸었으나 노사 합의로 해외지분 유치가 결정 돼 크게 환영한다"며 "긴급 자금 투입 등으로 유동성이 해소되고 곧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은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불안감을 어느정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회사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에서 해외매각 투표까지

금호타이어 노조의 중국 더블스타 자본 유치를 위한 '해외매각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1일 결론났다.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과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은 2일 오전 11시 광주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영정상화 및 단체교섭 노사 조인식'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채권단도 이른시일 내에 중국 더블스타와 공식적인 매각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음은 2014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부터 해외매각 찬반투표까지 주요 일지.

◇2014년

▲12월23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출범

▲3월1일
-채권단, 금호타이어 노사 자구계획안 거부

◇2016년

▲9월20일
-채권단,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 공개 경영인접 방식 매각공고

▲3월2일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 대공 농성 돌입
-산업은행,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투자 협상

◇2017년

▲1월12일
-중국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매각 본업 할 참여

▲3월14일
-금호타이어 노조, 총파업 돌입

▲1월18일
-더블스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월16일
-산업은행, 더블스타 투자유치 조건 승인
-채권단, 노조에 30일까지 동의없으면 자율협약 절차 중지 통보

▲3월12일
-박삼구 회장, 채권단에 인수 참여위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청

▲3월1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금호타이어 노조와 면담

▲3월13일
-채권단, 컨소시엄 구성안 거부

▲3월20일
-금호타이어 노조, 2차 총파업

▲3월14일
-채권단, 더블스타와 주식매매 계약

▲3월21일
-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 퇴장

▲9월5일
-인수가 등 협상결과, 더블스타에 매각 무산

▲3월2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 노조면담 불발

▲9월1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자구계획안 제출

▲3월2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30일까지 노조 동의없으면 상장폐지·청산 가능성"

▲9월26일
-채권단, 금호타이어 자구계획안 거부

▲3월27일
-타이어뱅크, 금호타이어 인수의사 표명

▲12월29일
-금호타이어 노조, 구조조정 저지 상경 투쟁

▲3월28일
-새 재무적 투자자, 채권단에 6억 달러 규모 재무적 투자안 제시

◇2018년

▲1월18일
-채권단, 외부자본 유치 추진

▲3월30일
-금호타이어 노조, 3차 총파업 돌입
-청와대 "금호타이어 문제, 정치적 논리로 해결 안해"
-금호타이어 노·사·채권단·정부·광주시 등 9인 간담회, 해외자본유치와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

▲2월26일
-금호타이어 노사, 자구계획안 합의실패

▲4월1일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찬반투표 실시(가결)

▲2월28일
-금호타이어 노사, 해외매각시 노사간 합의 문구포함된 자구계획안 마련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고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